



인후염약

요약

인후염약은 인두, 편도, 후두를 포함하는 상기도 점막의 염증으로 인한 증상에 사용하는 약물이다. 목이 따끔거리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는데 구강분무제와 빨아먹는 트로키 형태의 소염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다. 구강 내 소독용 가글액제도 도움이 되며, 세균 감염이 의심되면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외국어 표기

medicines for laryngopharyngitis(영어)
咽喉炎藥(한자)

동의어: 인후염약, 인두염약

유의어·관련어: 인후통약

인후염

인후염은 인두나 편도, 후두를 포함한 상기도 점막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거나 자극적인 물질에 의해 염증이 생겨 나타나는 상기도 질환이다. 기온차가 큰 환절기나, 감기, 과로, 세균 감염 등에 의해 급성 인후염이 생길 수 있다. 급성 인두 편도염의 대부분은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등 호흡기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인후염이 자주 재발하거나, 장기간 성대 사용으로 인한 손상, 흡연, 음주, 자극적인 식습관 등이 지속되면 만성화 될 수 있다.

보통 침을 삼키면 통증이 느껴지거나 목이 부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인후염의 증상을 나타낸다. 고열, 두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초기에는 혀 뒤쪽 인두 부위에 이물감과 건조감, 기침, 가래 등이 나타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음식이나 침을 삼키기 어려운 정도의 인후통이 느껴지고 목소리가 쉬기도 한다. 염증이 진행되어 후두 부위의 부종이 심해지면 숨을 들이쉴 때 힘들어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고열이 나고 림프절이 붓기도 한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보통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호전되므로,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행구는 등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목이 따끔거리거나 불편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뿌리거나 빨아먹는 형태의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통증과 함께 열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소염진통제가 도움이 된다. 생리식염수나 소독용 가글액 등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급성 중이염, 부비동염, 기관지염,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진행되어 세균 감염이 의심되면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고 침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 만큼 통증이 심하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항생제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도록 한다. 미미한 인후통 증상이 2주 이상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종류

목이 따끔거리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는데 뿌리는 스프레이제와 빨아먹는 트로키제 형태의 일반의약품 소염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다. 구강 내 소독용 가글액제도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증상이 진행되어 세균 감염이 의심되면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소염진통제

- 벤지다민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계열의 성분으로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 생산을 억제하여 국소적인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킨다. 국소 마취 활성도 가지고 있다. 벤지다민 가글액제, 구강분무제는 치은염, 구내염, 아구창, 발치 전후, 인두염, 편도염 등 물리적 원인에 의한 구강점막염의 증상 완화와 인후통 통증 완화에 사용한다. 탄툼® 등의 제품이 있다.

- 플루르비프로펜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계열의 성분으로 염증 부위에 작용하기 쉽도록 빨아먹는 형태의 트로키 제형과 입안에 뿌려쓰는 스프레이 제품이 있다. 트로키제로는 스트렙실®, 모가프텐® 등이 있고, 스프레이 제품으로는 목앤파워® 등이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구강 살균소독제

- 포비돈 요오드는 광범위한 살균효과를 나타낸다. 6세 이상의 소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입안에 뿌리는

스프레이 제형의 제품을 인후두염에 사용할 수 있고, 제품으로 베타딘인후스프레이® 등이 있다.

• 세틸피리디늄은 항균작용을 하여 인후두염에 사용할 수 있다. 빨아 먹는 형태의 트로키제를 사용한다. 단일제와 복합제가 있다. 세틸피리디늄에 기관지확장제, 기침억제제와 점액분비 촉진제를 함유한 복합제로 미놀에프® 등의 제품이 있다. 항염증, 진정, 항알러지, 상처치유 작용을 하는 수용성 아줄렌 성분과 세틸피리디늄 복합제 제품으로는 목앤® 등이 있다.

점액분비 촉진제

암브록솔은 점액분비촉진 작용을 하여 급성 인후염의 통증 완화에 사용한다. 빨아 먹는 형태의 트로키제가 있다. 제품으로 뮤코테라® 가 있다.

항생제

항생제는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인후두염에만 사용할 수 있다. 베타락탐계 항생제인 아목시실린과 세프디니르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도 사용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아목시실린 10일 투여 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아목시실린은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차단하여 항균작용을 한다. 아목시실린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서는 세프디니르, 아지스로마이신 5일 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용법

- 벤지다민 가글액제는 1일 2~3회 원액 그대로 또는 소량의 물에 희석하여 입에 머금고 가글하거나 양치한다. 의사의 지시 없이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벤지다민 구강분무제는 1일 2~6회까지, 각 회마다 연령에 따라 4~8회 범위에서 횟수를 조절하여 입 안에 분무한다.
- 플루르비프로펜 트로키제는 12세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약 1개를 입안에서 굴러가며 서서히 녹여서 복용한다. 3~6시간 간격으로 최대 5개까지 복용할 수 있다. 최대 3일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플루르비프로펜 스프레이는 18세 이상 성인에서 구강에 단기간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1회에 3번씩 목구멍에 분사하는데, 1일 최대 5회 (총 15번까지 분사할 수 있다. 분사할 때 숨을 쉬면 안되고 최대 3일간 사

용하는 것이 좋다. 개봉하여 처음 사용할 때에는 최소 4번 이상 시험 분사 후 쓰고, 매 사용 전 1번 이상 시험 분사하여 미세하고 균일하게 분사되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 포비돈 요오드 구강분무제는 1일 수회 적당량을 분사 도포한다.
- 세틸피리디늄 복합제 트로키는 씹거나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1정을 천천히 녹여서 복용한다. 성분 구성과 복용 연령에 따라 1일 복용 횟수에 차이가 있다. 연령대에 따라 최소 2~4시간 이상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한다.
- 암브록솔 트로키제는 12세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고, 1회 1정씩 빨아서 복용하며 하루 최대 6정까지 복용할 수 있다. 3일을 넘겨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 항생제는 처방된 용량과 날짜를 지켜서 복용하고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부작용

- 벤지다민 구강용 액제의 주요 부작용은 구강 마비감, 구강 내 찌르는 듯한 느낌이나 화끈거리는 느낌, 트림, 구역, 구토 등이 있다. 드물게 삼킨 후 수면장애, 시각적으로 미세한 떨림이나 색채에 대한 환각, 두드러기, 발진, 광과민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플루르비프로펜 트로키제의 주요 부작용으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입 마름, 구내염, 간수치 상승, 두통, 어지러움, 불면증, 졸음, 발진, 가려움증, 출혈시간 연장, 부종, 두근거림, 시각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포비돈 요오드 분무제는 분무 부위(입안, 인두)의 자극감과 짓무름, 구역 등이 있을 수 있다. 과량 사용시 요오드 독성이 있을 수 있다.
- 세틸피리디늄 트로키제는 발진, 구역, 두통, 구강 및 인두의 작열감 등 구강 점막의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암브록솔 트로키제는 소화불량, 구역, 구토, 가슴쓰림, 인후건조 및 구강건조, 복통, 식욕부진, 설사, 변비, 화농성 비염, 혀 감각 이상이나 미각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입안 마비감 등이 있을 수 있다.

- 항생제의 부작용에는 과민증, 조직에 손상이 일어나는 직접 독성, 인체에 정상균이 죽어서 새로운 감염이 일어나는 설사 등의 간접 독성 등이 있다. 항생제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과민증상이며 항생제 복용 시, 발진, 두드러기 또는 미열 등과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갑작스런 호흡곤란 및 쇼크 등과 같은 비교적 심각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과민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그 외에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주의사항

- 가글액제는 양치질 후 삼키지 말고 반드시 뱉어낸다.
- 국소적으로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염진통제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7일 이상 사용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 트로키제의 경우 침으로 천천히 녹여 복용하며 유효성분이 장시간 입안에 머물도록 씹거나 삼키지 말고 가능한 한 오래 입안에 물고 있어야 한다.